

2024. 11.10. 오후 1 시,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마가복음 Mark 8:31-34

제목: 하나님 일과 예수를 따르는 길

설교 시간 35 분, 11 쪽: 9~19

(표준새번역) 8:31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ESV) 8:31 And he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be killed, and after three days rise again.

8:32 예수께서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8:32 And he said this plainly.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8:33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8:33 But turning and seeing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and said, “Get behind me, Satan!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8:34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34 And calling the crowd to him with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두가지 일: 하나님의 일 vs. 사람의 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는 두가지 일이 있습니다. 33b 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받습니다.

8:33b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

8:33b ...”Get behind me, Satan!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들었는가 하면, 32 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의 항의는 ‘사람의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31 절, 예수님이

많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배척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표준새번역) 8:31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ESV) 8:31 And he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be killed, and after three days rise again.

고전 15:3b-4,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계획이며, 선지자들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고,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3b-4 ...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1 Corinthians 15:3b-4 ... Christ died for our sins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요 3:16 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 3:17,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3:17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John 3: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in order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롬 5:10,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5:10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Romans 5:10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by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now that we are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by his life.

요 1:12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12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John 1:12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즉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고치고,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방법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34a 절, 다른 제자들과 주변의 무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8:34a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

8:34a And calling the crowd to him with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

34b 절,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은 두가지, 곧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8:34b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8:34b ...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의 시간적 순서이며, 신앙에 대한 논리적 순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 자기를 부인하라 (Deny yourself)

나의 욕망과 의지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야망과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함, 나의 명예, 나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가 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고 성령이 이끄시는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과거,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무능,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결국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과 형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부인하고,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긍휼(자비)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며,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예수가 결정하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면, 다음은

✓ 자기 십자가를 지라(Take up your cross)

세상을 등지고, 자기의 죄와 욕망과 교만을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박아 죽이고, 예수를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사십니다.

이 선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 어려움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어려움!

예수 믿기 때문에 컨닝(Cheating) 안하고 공부 더 해야 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이고, 모두 법을 어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느라 손해보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보는 모든 것,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받으십시오.

내가 선택한 '믿음', 내가 선택한 '예수', 나의 신앙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더 수고해야 한다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내 허물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라면 기꺼이 짊어 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를 따라 갑시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세이며, 그 태도이며, 그 삶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입술로,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모델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침 삼아 예수 제자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갑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헌신(獻身, 몸을 드리다)’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이 좀 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이 삶이 예수 없이 사는 삶보다 조금 더 고달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고, 조금 수고하고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받을 것이기에 사실은 수익율과 수익성 면에서 최고인 투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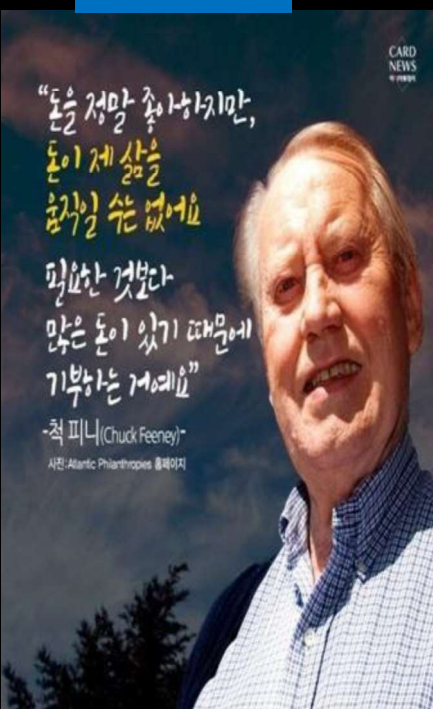
마무리

저는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 보십시오. 혹은 학생으로 있는 지금 한학기, 일년, 혹은 방학 동안 제 3 세계 자원봉사 혹은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중에 Billianary 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척 피니처럼!

하나님의 일

이제는 예수를 따라갑시다



CARD NEWS
2023.09.10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
돈이 제 삶을
회개할 수 없어요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기부하는 거예요”
-척 피니(Chuck Feeney)-
사진: Atlantic Philanthropies 홈페이지

Charles Francis Chuck Feeney (1931~2023)

사업가, 면세점의 개척자, ‘돈만 아는 억만 장자’
빌게이츠의 ‘롤 모델’, 워런 버핏의 ‘나의영웅’

1997년 루이비통과의 분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
날 때까지 익명으로 \$ 80억 기부,
\$27억 기부로 1000개 건물(본인 이름 없음)
본인이 세운 애틀랜틱 재단 2020년에 모든 돈 기부

좌우명: “두 발에는 한 켤레 신발 밖에 신을 수 없다. 수
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2만원짜리 손목시계, 방2개 임대 아파트

하나님 일과 예수를 따르는 길 마가복음 Mark 8:31-34

오늘 본문 34 절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눅 9:23 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9:23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ESV) Luke 9:23 And he said to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우리의 삶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 순간 순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 ➔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소서.